

Original Article

## 15세기 『鄉藥集成方』의 편찬 과정에 드러난 韓中 의학교류

강연석

민족의학신문

### The Writing of “HyangYakJipSungBang(鄉藥集成方)” and Medic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during the 15th Century

Yeon-Seok Kang

The MinJok Oriental Medicine News, Korea.

Since at least the late 12th century, medical herbs grown naturally or cultivated in Korea have been referred to as “HyangYak”(鄉藥, XiāngYào). Herbs from other countries are referred to as “DangYak”(唐藥, DāngYào). Some senior historians claim medicines made solely from HyangYak are purely Korean, since they originated and were developed fully within Korea. However, these localized medicines became abundant as the result of exchang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riginally published in 1433, “HyangYakJipSungBang” is the authoritative result of earlier writings of medical books using HyangYak. Comprised of a total of 85 volumes, it was large in scale and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1)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703 kinds of HyangYak, 2) explanations of the 10,706 different herbal formulae and 959 types of symptoms or diseases, and 3) descriptions of the 1,416 variou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formulae. It's noted that “HyangYakJipSungBang” was not written all at once. In the process of its writing, the number of formulae increased through medic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during the 15th century.

**Key Words** : HyangYakJipSungBang(鄉藥集成方), HyangYak(鄉藥), medical exchanges(醫學交流)

### 서론

1433년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은 전85권, 703종의 本草, 959종의 病症, 그리고 10,706종의 處方 및 1,416종의 鍼灸法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3대 대형의서이다. 『향약제생집성방』 序文에는 『三和子鄉藥方』, 『鄉藥簡易方』을 토대로 편찬(嘗有『三和子鄉藥方』, 頗爲簡要, 論者猶病其略. 曩日今判門下權公仲和命徐贊者尤加蒐輯, 著簡易方. 其書尙未盛行于世. … 左政丞平壤伯趙公浚, 右政丞上洛伯金公士衡, 上

體聖心, 請於中國置濟生院, 給之奴婢, 採取鄉藥, 劑和廣施, 以便於民. 中樞金公希善, 悉掌其事, 諸道亦置醫學院, 分遣教授, 施藥如之, 俾其求賴. 又患其方有所未備, 乃與權公特命官藥局官, 更考諸方. 又採東人經驗者, 分門類編, 名之曰『鄉藥濟生集成方』, …) 하였다고 밝혀두었고, 『향약집성방』 서문에는 1398년에 간행된 『鄉藥濟生集成方』을 1431년에 유효통, 노중례, 박윤덕 등이 1년여의 작업을 통해 완성(宣德辛亥秋, 乃命集賢殿直提學 臣 俞孝通, 典醫監正 臣 盧重禮, 副正 臣 朴允德 等, 更取鄉藥方編, 會諸

• 접수 : 2008년 9월 5일                      • 수정 : 2008년 9월 12일                      • 채택 : 2008년 9월 16일

• 교신저자 : 강연석(Yeon-Seok Kang)

민족의학신문,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48-16 현대빌딩 4층

Tel : +82-2-826-6456, Fax : +82-2-826-6457, E-mail : yeonkang@mjmedi.com

書, 搜檢無遺, 分類增添, 歲餘而訖. 於是舊證三百三十八而今爲九百五十九. 舊方二千八百三而今爲一萬七百六, 且附以鍼灸法一千四百七十六條. 鄉藥本草及炮製法. 合爲八十五卷, 以進名曰『鄉藥集成方』, 刊行廣傳.)하였다고 한다. 또 출판 후에도 1478년에는 본초 부분을 증보하였고, 1479년에는 본초에 그림을 그려서 출간하였으며, 1488년에는 諺解를 하는 등 약 100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내용이 확대<sup>10)</sup>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내용이 알려진 『향약집성방』은 1633년에 중간된 것으로 그림은 보이지 않으며, 15세기의 판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sup>10)</sup>. 더욱이 『삼화자향약방』과 『향약간이방』 역시 현존하지 않아 『향약집성방』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다행히 『향약제생집성방』 전체 30권 가운데 보물 1235호로 지정된 4, 5권은 한독의약박물관에, 보물 제1178호로 지정된 6권은 가천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향약집성방』의 편찬 과정을 일부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3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향약구급방』과 『향약집성방』의 기준서로 알려진 『太平聖惠方』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학의 가장 고유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향약집성방』이 중국 의학과 교류를 통해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어 본 논문을 통해 보고하고자 한다.

## 본 론

### 1. 『鄉藥救急方·心腹痛』에 대한 개관

『향약제생집성방』과 『향약집성방』의 시기보다 앞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서인 『향약구급방』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향약제생집성방』이 어떠한 수준의 의서인지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약집성방』과의 관계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신영일은 『향약구급방』은 『비에백요방』이라는 의서를 저본으로 하여 형성된 것<sup>6)</sup>이며, 안상우는 『비에백요방』이 고려 고유의 의서라는 것을 입증<sup>7)</sup>하여 『향약구급방』은 중국의학을 답습한 의학체계를 갖고 있다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향약구급방』과 현재 남아있는 『향약제생집성방』을 비교하던 중 「心腹痛」이라는 같은 제목을 갖는 단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심복통」은 물론 『향약집성방』에도 나타나는 소제목이므로 세 의서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다.

『향약구급방』은 85권인 『향약집성방』에 비해 시기적으로 약 200년 정도 앞서고, 총분량이 3권에 불과한 서적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Table 1.에 정리한 것으로 대강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는데, 『향약제생집성방』이나 『향약집성방』과는 달리 인용문헌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신영일의 연구를 통해 『비에백요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용된 처방들 가운데 복용법이나 용량이 다소간 다른 것들이 있을 경우에도 『비에백요방』의 것을 따르고 있어 『비에백요방』을 기본저서로 삼고 다른 책을 참고한 것<sup>8)</sup>이라고 하였다. 鄉藥의 범주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지난 2002년의 연구에서 鄉藥을 조선의 영토 내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약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조선 초기의 향약의 범주는 『鄉藥集成方·鄉藥本草』에 실린 703종의 것을 준거로 삼을 수 있다<sup>1)</sup>. 이 조문의 9종 처방에 사용된 10종의 본초는 모두 『향약집성방』에서 제시하는 향약의 범주에 들어간다.

### 2. 『향약제생집성방』과 『향약집성방』의 비교

Table 2와 3은 심복통과 관련된 『향약제생집성방』과 『향약집성방』의 조문에 있는 처방수와 사용된

**Table 1.** 『HyangYakGuGeopBang(鄉藥救急方)』

the number of herbal formulae	10 kinds of used herbs
9종 처방	乾漆, 槐嫩枝, 當歸, 蜜, 白芍藥, 小蒜根, 醎醋, 薏苡根, 酒, 鶴蝚

**Table 2.** 『HyangYakJeSaengJipSeongBang』

the number of herbal formulae	27 kinds of used herbs
心腹痛 21종 처방 胸痺 12종 처방	薑, 乾漆, 苦參, 瓜蒌實, 非根, 麴, 大戟, 馬糞, 半夏, 白附子, 白朮, 枳, 生油, 生地黃, 艾, 鹽, 吳茱萸, 威靈仙, 薏苡根, 赤茯苓, 前胡, 枳實, 陳皮, 菖蒲, 鶴虱根, 杏仁, 厚朴

**Table 3.** 『HyangYakJipSeongBang』

the number of herbal formulae	114 kinds of used herbs
一切心痛 61종 처방 心腹痛 51종 처방과 침구법 氣分 1종 처방 胸脇痛 5종 처방과 침구법 胸痺 16종 처방과 침구법	薑, 粳米, 乾漆, 牽牛, 雞子, 瓜蒌, 藥木, 苦參, 古磚, 苦酒, 瓜蒂, 膠飴, 狗心血, 麴, 芎藭, 桔梗, 膩粉, 當歸, 鑄墨, 大口魚, 大戟, 大豆, 桃仁, 頭得, 螺粉, 亂髮灰, 狼牙, 棟樹, 鹿角, 龍膽, 馬糞, 麻葉, 鱧鱠魚, 牡蠣, 茅香, 木賊, 蜜, 白頭翁, 白麴, 白礬, 白附子, 白酒, 白芷, 白朮, 伏龍肝, 婦人油髮, 釜下墨, 麝香, 山梔子, 蒜, 生油, 生地黃, 黍米, 石榴, 小蒜, 小茴香, 粟米, 松葉, 升麻, 歧, 新汲水, 仰天皮, 艾麴, 延胡索, 熱湯, 鹽, 烏梅, 吳茱萸, 郁李仁, 雲薑, 熊膽, 韋皮, 薏苡根, 人參, 紫蘇, 蠶砂, 赤茯苓, 赤小豆, 赤芍藥, 錢, 前胡, 柱下土, 枳殼, 地膚子, 枳實, 地主, 地黃, 陳橘皮, 茶, 蒼耳葉, 蒼朮, 菖蒲, 川芎, 川椒, 靑梁米, 靑木香, 靑油, 靑錢, 靑布, 醋, 葱白, 破古紙, 鶴虱, 蛤粉, 薤白, 杏仁, 香附子, 香豉, 香油, 胡挑, 紅花, 黃芩, 茴香

본초를 나열하였다. 『향약제생집성방』 권4에는 「心腹痛」과 「胸痺」 조문이 관련 조문이고, 『향약집성방』은 권23 전체가 “心痛門”이며, 이 “心痛門”은 다시 「一切心痛」, 「心腹痛」, 「氣分」, 「胸脇痛」, 「胸痺」의 세분류 체계를 갖고 있다. 양쪽에 사용된 약재는 모두 『향약집성방』 권76-85에 나와있는 「鄉藥本草」의 범주에 따라 향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3종의 처방에 27종의 본초를 이용한 『향약제생집성방』보다 134종 처방에 114종의 본초를 이용한 『향약집성방』이 규모면에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心腹痛」, 「胸脇痛」, 「胸痺」에는 서문에서 언급(且附以鍼灸法一千四百七十六條)한 것처럼 침구법이 말미에 붙어 있고, 인용한 문헌도 한중 양국의 것이 동시에 늘어나 있는 것을 보아 대규모 편찬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향약집성방』과 『태평성혜방』의 비교

『향약제생집성방』과 『향약집성방』의 비슷한 조문을 통해 『향약집성방』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 늘어났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책은 모두 鄉藥만을 사용하고 있는 처방으로 무엇이 특색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는다. 『향약구급방』이 고려의서인 『비에백요방』을 기준서로 하여 책이 편집되었다면, 『향약집성방』은 송대 의서인 『태평성혜방』을 기준서로 하여 편집<sup>2)</sup>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향약집성방』은 형식적인 면에서 『태평성혜방』의 큰 형식을 많이 채용했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Table에서는 『태평성혜방』의 본초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분류에서 첫번째에 제시된 처방과 그 처방의 본초를 나열해 보았다. 『향약집성방』에 『태평성혜방』의 조문이 많이 인용되었지만 대부분 처음에 제시된 처방들은 많이 인용되지 않았다. 처음의 처방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편집의도상 편집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방이 앞부분에 나오기가 쉬운데도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빈도는 극히 낮다는 점은 다소간 의외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able에서는 직접적인 처방과 본초를 보여주었는데, 대부분 향약이 아닌 약재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란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이러한 본초의 제한<sup>1)</sup>은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의 제한(예: 補中益氣湯 - 향약에 포함되어 있는 黃芪, 人蔘, 白朮, 當歸身, 陳皮, 升麻, 柴胡와 당약에 속하는 甘草가 있다. 이 경우 일부 쓸 수 있는 향약만 당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본초라도 향약에 속하지 않는 당약이 있으면, 그 처방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향약의학이다. 『향약집성방』 85 권 전편에는 10,706종의 처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감초가 들어간 처방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을 가져오게 되며, 치료범주나 효과의 제

Table 4. 『TaiPyungSungHyeBang(太平聖惠方)』

section	the first herbal formula of each section
治九種心痛諸方 9종	沈香散: 沈香, 赤芍藥, 酸石榴皮, 桔梗, 檳榔, 大腹皮, 紫雪
治卒心痛諸方 13종	高良薑散: 高良薑, 厚朴, 桂心, 當歸
治諸蟲心痛諸方 15종	當歸散: 當歸, 桔梗, 赤芍藥, 陳橘皮, 鶴虱, 人參, 桂心, 檳榔
治冷氣心腹痛諸方 11종	桔梗散: 桔梗, 當歸, 赤芍藥, 赤茯苓, 白朮, 陳橘皮, 華澄茄, 厚朴, 桂心, 草豆蔻, 訶黎勒, 檳榔
治心腹痛脹滿諸方 8종	前胡散: 前胡, 陳橘皮, 當歸, 赤茯苓, 白朮, 赤芍藥, 桂心, 半夏, 乾薑, 吳茱萸
治久心痛諸方 9종	川椒散: 川椒, 當歸, 川烏頭, 甘草, 枳殼, 附子, 乾薑, 桂心, 吳茱萸
治惡疰心痛諸方 6종	鬼箭羽散: 鬼箭羽, 桃仁, 赤芍藥, 鬼臼, 陳橘皮, 當歸, 桂心, 柴胡, 朱砂, 川大黃
治中惡心痛諸方 6종	大黃散: 川大黃, 赤芍藥, 川升麻, 鬼箭羽, 鬼臼, 桂心, 桔梗, 柴胡, 川朴消
治心痛多唾諸方 6종	前胡散: 前胡, 檳榔, 半夏, 枳實, 訶黎勒, 桂心, 赤茯苓, 陳橘皮, 旋覆花, 吳茱萸
治心背微痛諸方 6종	吳茱萸散: 吳茱萸, 檳榔, 人參, 半夏, 肉桂, 當歸
治心痛不能飲食諸方 8종	高良薑散: 高良薑, 當歸, 陳橘皮, 厚朴, 桃仁, 桔梗, 乾薑, 訶黎勒, 吳茱萸
治心懸急懊痛諸方 6종	木香散: 木香, 川朴消, 桃仁, 赤芍藥, 柴胡, 白朮
治心腹相引痛諸方 6종	當歸散: 當歸, 檳榔, 青橘皮, 赤芍藥, 桂心, 乾薑, 吳茱萸, 人參
治腹虛脹諸方 7종	半夏散: 半夏, 桂心, 赤茯苓, 陳橘皮, 人參, 白朮, 大腹皮, 桔梗, 枳殼
治心腹鼓脹諸方* 5종	木通散*: 木通, 赤茯苓, 玄蔘, 桑根白皮, 白米, 澤瀉, 人參, 郁李仁, 澤漆
治腹痛諸方 8종	當歸散: 當歸, 桂心, 乾薑, 紅豆蔻, 木香, 附子
治心腹卒脹滿諸方 7종	草豆蔻散: 草豆蔻, 丁香, 縮砂, 桃仁, 青橘皮, 白朮, 蘿菔子, 桂心, 木瓜, 木香, 枳殼, 檳榔
治胸脇痛諸方 6종	桂心散: 桂心, 訶黎勒, 附子, 白朮, 枳殼, 桔梗, 木香, 赤芍藥, 檳榔, 當歸
治腹脹腸鳴切痛諸方 7종	丹蔘散: 丹蔘, 枳殼, 桔梗, 白朮, 赤芍藥, 檳榔, 桂心, 青橘皮
治腹內諸氣脹滿諸方 9종	檳榔散: 檳榔, 海藻, 人參, 陳橘皮, 木香, 芎藭, 桂心, 乾薑

\* 『향약집성방』 22권 「積聚門」에 같은 제목의 편이 있고, 향약만으로 대체가능한 목통산을 첫번째 처방으로 인용하였다.  
 ※ 굵은 글자로 표시된 것은 「향약본초」에 실려있지 않은 대체불가능한 唐藥임.

약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향약집성방』에서는 生用藥材를 쓰거나 다양한 제형을 食餌治療의 방법으로 극복하려 했다는 것은 이미 보고<sup>1)</sup>한 바 있다.

### 결론

『향약집성방』은 약 100여 년에 걸쳐 조선의 국가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보강된 의서이다. 13세기에 발간된 『향약구급방』이나 1398년에 발간된 『향약제생집성방』, 그리고 『향약집성방』의 기준서라고 알려진 『태평성혜방』<sup>2)</sup>과의 일부 비교를 통해 『향약집성방』의 특징과 15세기 향약의학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향약제생집성방』은 이미 『향약구급방』에 비해 많은 양의 중국 의서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의서들로부터 선택한 처방들도 다른 향약 의서들과 마찬가지로 향약만으로 구성된 처방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향약집성방』은 『향약구급방』이나 『향약제생

집성방』에 비해 단순히 처방의 가지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병증의 분류방식 등도 세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까지의 고유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중국 의서들까지도 총망라하여 향약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처방을 모두 모아놓은 의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향약집성방』은 고려시대까지의 고유한 의학만을 집대성해놓은 의서가 아니라 조선의 관료들이 중국 의학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앞선 연구자들은 『향약집성방』에 대해 ‘鄉藥方을 집대성하여 醫藥 자립의 기초 마련’<sup>2)</sup>, ‘백성들이 처방을 손쉽게 값싸게 이용하기 위한 의서’<sup>4)</sup>, ‘기존의 의학 지식에 鄉藥材를 이용한 經驗方을 덧붙임’<sup>5)</sup>, ‘중국의학을 한국적으로 수용함’<sup>3)</sup>이라는 등의 평가를 하였는데 『향약집성방』의 입체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논의들은 鄉藥醫學을 의학의 자주독립<sup>2)</sup>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논거가 되거나 향약의학은 중국의학 지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약재와 경

힘을 단순히 보충한 것에 불과<sup>5,6,9)</sup>한 의학으로 간주될 우려도 있는데 『향약집성방』의 형성과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극단으로 평가가 치닫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향약의학은 우리 고유의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학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풍부한 활용법을 계발하여 발전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5세기 향약의학이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이루어서 16세기 東醫의 탄생을 이끌어낸 것처럼 21세기 한의학도 새로운 의료환경에 맞서기 위해 다각도로 자기 발전에 대한 노력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 2002 :17-25.
2.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서울:探究堂. 1993:206.
3. 김남일. 鄉藥集成方은 어떤 책인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 『새천년 鄉藥集成方』. 서울:정담. 2000: I -9.
4. 김남일.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제26회 韓國古典研究심포지엄 《鄉藥集成方》의 종합적 검토. 서울:震檀學會. 1998:212-213.
5. 김호. 麗末鮮初 ‘鄉藥論’의 형성과 『鄉藥集成方』. 제26회 韓國古典研究심포지엄 《鄉藥集成方》의 종합적 검토. 서울:震檀學會. 1998:2.
6. 申榮日. 鄉藥救急方에 對한 研究(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346.
7. 安相佑. 고려의서 『비예백요방』의 고증-실전의 서의 복원Ⅱ. 제2회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발표회자료집. 2000:1.
8.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2). 서울:翰成社(복사판). 1980:1291-1320.
9. 朱承宰. 明代韓中本草發展比較研究(公元1368~1644年). 北京:中國中醫研究院醫史文獻研究所. 1998:iv.
10. 한국한의학연구원.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한국한의학연구원. 2001:15-16.
11. 世宗朝命撰. 鄉藥集成方(全). 서울:杏林書院. 1943.
12. 權仲和 외. 鄉藥濟生集成方. 한독의약박물관소장. [발행년불명];4권.